

2023 전공의직무교육

의료윤리

202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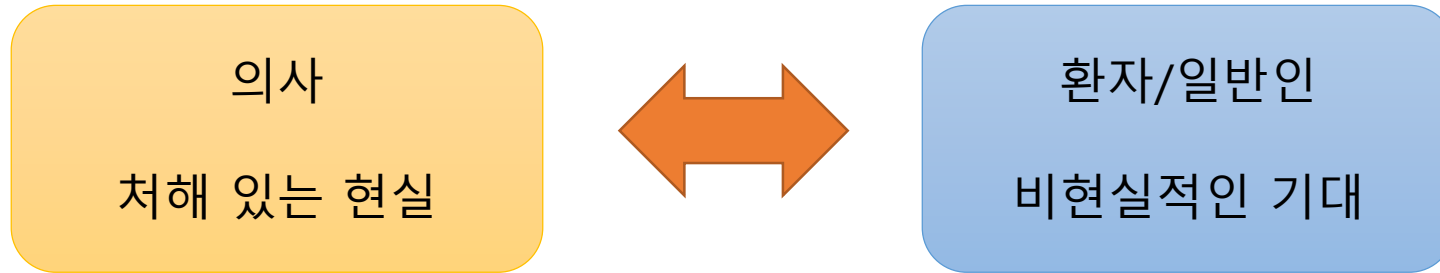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애



의료인문학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픈 아이 앞에서 밤새 고민하던 의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렸다고 전해지는 필즈 경의 그림은, 지금까지도 의사란 누구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관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루크 필즈(Luke Fields)의
<의사(The Doctor)>(1891)

윤리란



“의사가 말아야...”

이런 갈등 속에서 '윤리'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옥죄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

의사의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를 논할 때 우리는 '윤리'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관에 물든 아우라를 탈피해야만 하며, 그래야만 전문직 윤리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문직 윤리는 의사를 옥죄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닌,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직업적 존엄성을 지니고 바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다.

전문직 윤리와 의사의 직업적 존엄



이미 언급한 여러 오해들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문직 윤리란 특정인 A씨가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 그가 도덕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전통적인 윤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그 특정인 A씨가 의사라고 하면 그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다. 이 규범은 그가 의사로서 기능할 때 적용되지만, 가장으로서, 남편/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자녀로서 기능할 때는 별로 관련이 없다. 전문직 윤리는 의사의 의사다움(professional integrity)이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규범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특정 의사 A씨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과 의절하고 산다 해도, 성적 파트너를 계속 갈아치우는 난봉꾼이라 해도,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 해도, 혹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해도 그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적절하게 행위하고 있는 한 전문직 윤리의 입장에서는 그를 비난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윤리(personal ethics)와 직무윤리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리란 '선행'이 아니다

"윤리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 국가지역 따라 다를 수 있어"

치의 출신 의료윤리학자 김준혁 작가

전수환 기자 | 등록 2018.12.14 15:57:38

- "윤리라는 것은 선한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이에 따르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윤리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윤리는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주제**라고 본다. **사고와 논증**을 우선시 한다.



- 임상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안점 두는 것 : 과학적 증거의 활용
- 의료윤리에서 보건의료결정의 핵심적 측면 : 가치
- 더불어 명확한 사고와 높은 합리성만으론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성만큼이나 감성도 키워야 한다. **올바른 감성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맞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와 의료윤리와의 관계 : "임상현장에서의 모든 과정 및 결정과 관련 "

- 의료윤리는 우리를 정치의 영역으로 이끌기도 한다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결정과정은 어떻게?
 - 치매에 지원? 희귀질환치료에 지원? MRI보험에 지원?
- 의료윤리는 법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행위는 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봐야할까?
 - 정신질환자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적인 치료는 어느 시점에 시행해야 될까?
- 의료윤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바람직한 관계를 다루는 국제적인 이슈까지 우리를 이끈다
 - Covid19 치료제 실험을 제3국가에서 시행
- 의료윤리는 형이상학부터 사소한 문제까지를 포괄하며, 큰 이슈뿐 아니라 일상적인 의료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므로 그들의 일상은 윤리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의료윤리의 역할

- 의료윤리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해 상충되는 견해를 명확하게 해준다.
 - 수술, 시술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할 때 의사가 설명해야하는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 이때 의료윤리는 환자에게 전달해야하는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상황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의료윤리는 잔소리꾼 역할을 한다.
 -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의료윤리의 역할

- 의료윤리는 기존 지식의 결함을 확인하고 올바른 의료행위를 뒷받침 하는데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 현 의료상황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윤리적 분석을 통해 발견 가능
 -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 행동지침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더 모을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어느 단계에서 치료를 중단할지 결정하는 기준 - 현 치료 기술의 한계점을 알아야 하며,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 알코올의존 남편 : 입원 안하고 퇴원 > 아내를 폭행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더 많은 질문과 평가를 해야함을 느끼게 함.
- 의료윤리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 의료전문가, 환자, 가족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결정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의료윤리의 특수성 : 의료법과 구분하기

논증

의료법

의료윤리

법령에 기술된 원칙 이전의 판결에서 출발	논증의 기초	원칙 없음 맥락상 적절한 윤리원칙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전 사례가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법과 달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의료법을 뒷받침	과연 옳았던 것일까?	법적 사례가 윤리를 뒷받침 하진 않음

의료윤리는 철학이 아니다

- 의사,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윤리를 철학의 일부로 보기를 거부
 - 철학적 분석은 사례 속 사실들의 복잡성을 다루지 못함
 - 철학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의료윤리와 관련된 경험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 의료윤리의 경험적 전환
-
- 의료윤리에서의 철학은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세심하게 분석 하는 것
 - 의료행위는 과학과 철학 두 영역을 통해 주의 깊게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 과학이 묻는다 "현재의 care와 treatment를 택한 근거가 무엇인가?"
 - 철학이 묻는다 "윤리적인 선택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 : 행복한 의사, 떳떳한 의사, 좋은 의사

연세이비인후과 의원

홍 성 수

Korean J Gastroenterol Vol. 60 No. 3, 135-139
<http://dx.doi.org/10.4166/kjg.2012.60.3.135>

REVIEW ARTICLE

KjG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의사다움이란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들어가며

윤리란 철학의 한 갈래로 실천의 규범이다. 의료윤리란 의사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의사로서 의업을 실천하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의사 본인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 규범이다. 그 동안 의료윤리의 세부 항목은 의학의 발전과 의료인의 활동 영역의 다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청에 의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무수하게 분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 접촉 시, 긍정적 관계의 총량이 향후 치료 과정의 성패를 좌우하며 심지어 병, 의원 경영의 절대 변수일 수 밖에 없는 환자-의사 관계 윤리(medical ethics for patient-doctor relationship)는 결정적이다. '의료의 질 관리와 환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편으로서 의료윤리의 4대 원칙(자율성, 악행금지, 선행, 정의)에 기반하여 각자 의업에 종사하는 동안 늘 스스로 점검하여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혹시 다른 2차적 이득에 좌우되지 않는가, 혹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벽한 환

자의 동의를 얻어 사후 오해나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는가(자율성), 의사는 미리 인지한 경우는 물론 무지와 태만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해가 될 일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악행 금지), 의사는 자기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선행), 의사는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한된 비용과 자원을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해 배분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가(정의).

지난 250여 년 동안 새로운 철학과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사회가 자연과학에 기반한 근대 의학과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 개념과 공공의료의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확고한 서구 의료(윤리)선진국들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그 나라 의사들이 유난히 성인군자라서 더 윤리적이고 이윤추구에 초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는 의사가 환자 진료와 전반적 보건 향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협의, 수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여건과 특권을 제공하고, 대신 의사들은 시대 변화에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기꺼이 받아들여 스스로 윤리적 태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그 실천으로 의업에 입문한 시점부터 의업에 종사하는 내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여 의무적으로 반복,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의사로서의 행복, 자부심 그리고 명성

- 서력기원전 460년경,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개원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 만든 선서의 내용
 1. 다짐의 증인으로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이게이아, 파나케아 신들 앞에서
 2. 스승을 존경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의술을 전수하겠다.
 3.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으로 삼겠다.
 4. 환자에게 악행(독약, 낙태)을 하지 않겠다.
 5. 약물치료(본인 영역)을 고수하고, 수술(타 영역)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
 6. 품위유지를 위해 금전적, 성적 유혹을 회피하고 특히 왕진 시에 더 주의하겠다.
 7.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보호를 엄수하겠다.
 8. 의사로서의 행복과 자부심 그리고 후대에도 부끄럽지 않을 명성을 위해서

전문직 윤리와 의사의 정체성

- 의사다움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바람직한 의사의 모델을 말한다.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 진정한 의미의 봉사의
삶을 살다 간 '참의사'

〈성산 장기려 선생〉

전문직 윤리

- 의사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
- 직업은 '도덕적 전문직(moral profession)'
- 사회가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때 정당화 될 수 있음.
 - 사회는 의사들이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하며, 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 의사는 한 사람의 양성에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의 역량을 소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큰 손해가 된다.

전문직 윤리

- “Medical Ethics”에서 ‘의사란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공공의 봉사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의사가 공공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테니 그에 합당한 특권을 인정해 달라’, 혹은 ‘사회가 의사에게 공공의 의무를 요구하려면, 그 직무에 합당한 특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회계약 정신을 표현한 중요한 논지이다.

전문직 윤리 : 독립성과 자율성

- 의사 단체(의사협회 또는 각종 학회)는 개별 의사의 진료의 질을 보장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상급 의사, 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동료 의사들을 통해 개별 의사의 진료를 판단, 평가할 수 있다.
- 어떤 진료가 '비과학적 진료' 혹은 '과잉진료'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해당 진료가 '성추행'의 소지를 안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동료 의사들만이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 의료(윤리) 선진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문제적 동료 의사'의 비율이 대체로 2~5%에 해당한다고 한다. 95~98%의 대다수 선량하고 성실한 의사들을 이들 '문제적 동료 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 이전에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으로 이들을 진료 현장에서 격리시켜 재교육을 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거나 반복되는 경우 자율징계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고, 전체 의료 질 관리(Quality Control)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료윤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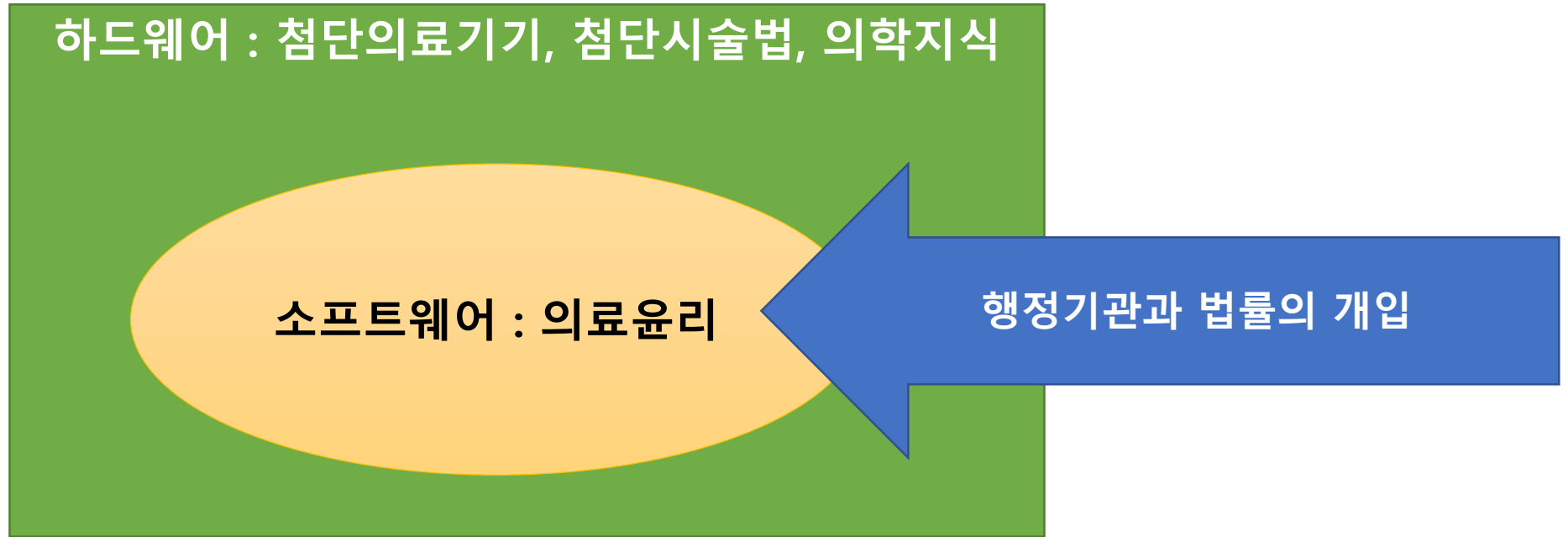
자정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직 집단

이후 의료윤리에 대한 첨예한 논의의 초점은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orthodox doctor)가 사이비, 돌팔이들과 벌이는 정통성, 기여도, 주도권 그리고 생존권을 다투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와 맞물린다. 특히 사이비 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그 폐해가 극심했던 미국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전문직 자율규제(professional self-regulation)를 주장하는 정규의사들을 중심으로 1808년 보스턴 의사회의 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1847년 미국 의사 협회가 창립되었다. 남북전쟁(1861~1865)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들(320만 명 참전에 사상자 62만 명)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통해 정규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 특히 외과 분야의 눈부신 활약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이비 의료가 퇴출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1877년 미국 최초의 주 면허법은 주 정부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앨러배마 주의 주 의사회에서 정부를 설득하여 돌팔이들을 의료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⁶ 그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규칙(rule)을 만들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책임있는 전문직의 태도이며, 또 그러한 태도가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전문직 윤리 : 무형의 소프트웨어

- 의사의 '인성'과 혼동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남.
- 의사의 인성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가 배워야 할 내용



조직화된 의료 (organized medicine)

- 어떤 의사도 개인으로서는 전문직업성의 규정과 실천을 감당하기 어렵다.
- 조직화된, 책임감을 가진 의사 단체만이 전체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며, 문제가 있는 회원들은 교정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떳떳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때로는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게끔 사회를 설득, 또는 압박할 수 있다.

근대 서양 의학에서의 의(醫, Medicine)의 의미

17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의(醫, Medicine)에 대해 합의된 정의(definition)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의 총합이다.

의학(醫學, medical science) - 머리 - 지식

의술(醫術, medical skill) - 손 - 기술

의료(醫療, medical practice) - 마음 - 실천

- 지식-기술-실천이 균형 있게 융합한 고도의 전문업성과 사회적 책무 그리고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practice)란 그냥 환자의 병을 고치는 단순업(work)이 아니라, **의료 인문학적 교양을 완비하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최소한
의료윤리를 행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